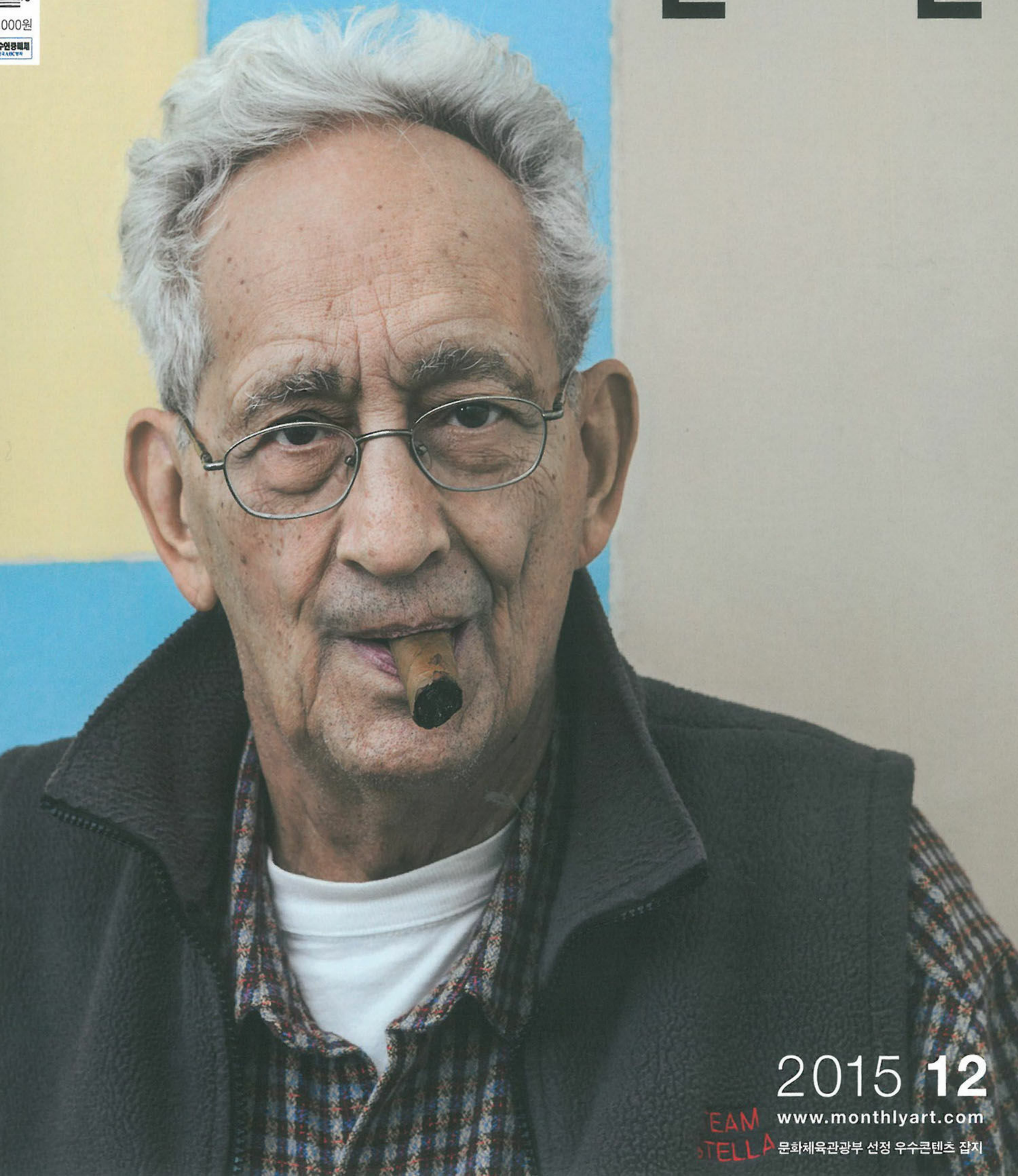


월간미술

12
000원
수원문화재단



2015 12

TEAM STELLA www.monthlyart.com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 잡지



한국건축예찬 1

땅의 깨달음





한국전통문화학교. (주)기흥상
〈경복궁과 옥조거리〉 1142.5×340.6cm

삼성미술관 Leeum의 기획전시실 '블랙박스'에서 처음으로 건축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11월 19일부터 2016년 2월 6일까지 열리는 <한국건축예찬 - 땅의 깨달음전>은 한국 전통건축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망하는 전시이자, 삼성문화재단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를 위해 삼성미술관 Leeum은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김원 대표와 이상해 문화재위원장, 김봉열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에게 자문해 한국 전통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 10곳(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선암사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도산서원 소쇄원 양동마을)을 선정했다. 그리고 주명덕, 배병우, 구본창, 김재경, 서현강, 김도균 등 6인의 사진가가 그곳을 촬영했고, 그 결과물은 11권의 사진집으로 출간됐다.

<한국건축예찬 - 땅의 깨달음전>은 건축물 10곳을 크게 세 개의 개념, 즉 天·地·人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눠 구성됐다. 먼저 '天-침묵과 장엄의 세계' 섹션은 종교적, 정신적 세계관과 관련된 불교사찰과

궁궐건축을 비롯해 왕실의 사당인 종묘가 중심이 된다. 두 번째 '地-터의 경영, 질서의 세계'는 궁궐건축과 성곽, 관아건축을 포함한 지배 권력에 의한 통치 이면과 터의 경영을 되돌아본다. 마지막으로 서원과 정원, 민가를 하나로 엮은 '人-삶과 어울림의 공간'은 도산서원, 소쇄원, 양동마을 등을 중심으로 사대부와 서민의 삶과 공동체가 어울린 한국 전통건축의 의미를 음미해본다. 한편 이 전시에는 건축물 사진 외에 국보 제249호인 <동궐도>와 <경기감영도>를 비롯한 평소 보기 힘든 고미술품이 함께 선보인다. 이밖에도 석굴암의 축조과정을 3D로 재현한 영상과 디지털 확대기술 등을 통해 보다 생생하고 역동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월간미술>은 화보를 실어 전시장의 현장감을 전달하는 동시에 이번 전시를 총괄 기획한 삼성미술관 Leeum 이준 부관장과 서울시립미술관 김흥희 관장과의 대담을 통해 융합형 전시를 표방하는 이 전시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한국 고건축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방법

이강근 서울시립대 교수





삼성미술관 Leeum은 세계적인 건축가 3인 즉 마리오 보타(Mario Botta), 장 누벨(Jean Nouvel), 렘 쿨하스(Rem Koolhaas)가 각기 MUSEUM1, MUSEUM2, 삼성교육문화센터(블랙박스)를 맡아 건축해 공간마다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 이를 하나로 조화시켜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킨 세계적인 작품이다. 이 가운데 <한국건축예찬전>(11.19~2016.2.6)이 열리고 있는 삼성교육문화센터(블랙박스)는 “나는 건축이 어떻게 이벤트의 흐름을 보내고, 강화시키고, 유연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 렘 쿨하스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전시기획자는 중앙홀에서 출발하여 비탈길과 계단을 거쳐 전시공간으로 이어지는 유연하고 투명한 내부공간의 흐름을 잘 이용하여, 숲 사이의 그윽한 길을 표현한 걸개사진, 부석사 무량수전의 실물크기모형, 종묘 정전의 열주랑을 촬영한 흑백사진을 적절히 배치하여 관람자를 전시장으로 초대함으로써 한국건축의 진수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전시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첫 전시실에 들어서자 사진가의 대형 건축사진이 걸려 있고 사이사이로 슬라이드, 3D-입체영상, 건물모형 나아가 삼성미술관 Leeum 소장의 유물마저 혼재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다종 다량의 매체를 동원하여 전통을 과거로부터 현재로 소환하려는 기획자의 의도대로 관람자는 간단없이 이어진 전시공간 속에서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선암사, 종묘를 차례로 만나게 된다. 사진가의 건축사진 이면에 그의 주관이 개입하고 있으리라는 것, 그리하여 사진으로 재현된 건축이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는 다른 시각매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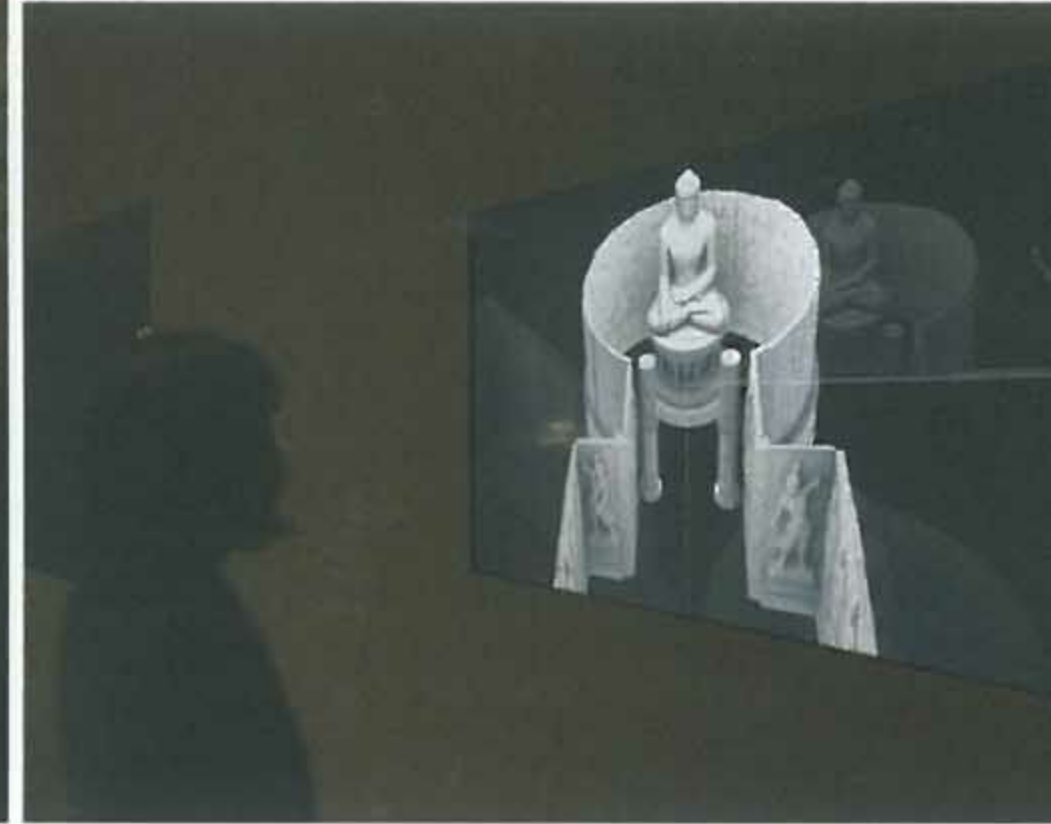
그러니 이 전시에서 본의 아니게 다른 시각매체와 경합하게 된 건축사진이 보여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구나 해인사는 주명덕, 불국사는 서현강, 통도사는 구본창, 선암사와 종묘는 배병우라는 각기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 온 개성 넘치는 사진작가의 작품임에랴. 별도의 방에 마련된 삼성미술관 Leeum 소장의 <용두보당>, <금동대탑>, <금동토수>와 <풍탁> 그리고 <아미타설법도>는 사진가들이 밀도있게 접근하지 않은 사찰 불전의 장엄을 최고의 유물로 재구성하여 보여준다. 이 방을 나서는 순간 관람자는 건축사진에서조차 화려한 장엄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건축도면과 아울러 터의 지형을 떠낸 건축모형과 부조작품은 건축역사 전공자의 시선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건축사진을 되돌아보게 한다. 앞에서 사진을



왼쪽 서현강 <석굴암>
오른쪽 국립중앙박물관,
유라시아디지털문화
연구소(지교), (주)위프코
<석굴암, 송고한 불국토의
세계> 석굴암 축조과정
3D영상 4분

오른쪽페이지
박종우 <장엄한 고요>
3채널 영상 5분 2015



보고 온 관람자를 길목에 마련된 별도의 방에서 기다렸다가 사진으로 보여줄 수 없는 객관의 세계를 보도록 요청한다. 해인사 사진에서 주명덕이 드러내고자 했을 자연의 적막함과 수도생활의 아스라함은 해인사 모형 앞에서 지워진다. 극락구품연지를 사진에 담아 화려한 불국토를 사진으로 구현한 서현강의 불국사도 마찬가지로 위험에 직면한다. 건축모형과 건축사진의 병치가 가져다줄 모험적 상황을 관람자는 감상과 이해를 위하여 견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사진가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인 것인가.

종묘 전시실 벽 속에 마련된 박종우 감독의 영상은 30분 동안이나 장면과 소리와 속도로 관람자를 사로잡는다. 그가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듯하다. "그래 건축이란 이런 거야 살아있어야 하는 거라고." 이 방을 나와서 다시 흰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눈여겨보기란 쉽지 않다. 이미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긴 터라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宗廟親祭規制圖說屏風)>처럼 학술적 설명이 필요한 유물에는 차마 다가서지지 않는다. 마침 준비된 에스컬레이터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이곳을 빠져나가 아래층의 다음 전시실로 데려다주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이 된다. 윗층의 전시는 '하늘' 혹은 '침묵과 장엄의 세계'로, 아래층 전시는 '땅' 혹은 '터의 경영, 질서의 건축으로 기획되었으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아래층의 전시는 지도로부터 시작된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제작에 영향을 끼쳤다는 <동국대지도>에 표현된 산, 하천, 바다 등은 산과 물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경성', '연용대', '북한' 주위에서 관찰되는 성곽 기호가 산과 물 사이에 쌓은 건축으로 드러날 뿐, 풍수적 지리관념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 옆에 걸린 <한성도>에는 성곽, 궁궐, 종묘, 사직, 길, 돌다리 등이 표기되어 있어서 지도 제작 당시 한성이라는 도시와 건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에서 여러 시각 매체로 확인할 수 있었던 여러 사찰과 종묘도 지도 속에는 점과 면으로만 담겨 있다. <동국대지도> 맞은편에 마련된 영상물은 한성의 지형과 옛길의 변천상을 실증적으로 탐색해 온 한 학자의 작업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현대적 시각매체로 표현된 지도 속에 건축은 또 앞으로 어떻게 담겨 그 존재를 드러낼 것인가.

지도를 보느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창덕궁 사진, 경복궁 모형을 본다. 19세기말 한성의 도시와 건축을 축소해서 담아낸 모형은 그러나 사실이기보다 환영으로 인식된다. 오늘날 서울에서 그 흔적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덕궁 사진에 담아낸 시간, 계절, 빛 등은 <규장각도>와 만나면서 18세기 후반의 화풍 속에서 화려한 채색으로 되살아난다. 관람자의 시선은 대작인 <동궐도>로 옮겨져 화면을 훑어가지만 그림 속의 규장각은 그저 후원 속



한 시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는 국내 첫 공개되는 작품으로 별도의 공간에 정성껏 전시되었는데, 19세기에 저자인 한필교(1807~1878)가 근무했던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대하여 사이트 전체를 특별한 묘법으로 그린 건축도 모음집으로 2012년에 우리말과 영문으로 번역, 출간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한성부와 종묘서 그림은 1839년 제작으로 건축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디지털아카이브와 잡상을 곁들여 궁궐건축에 관한 1차 사료를 보여주려 한 점은 이 전시가 사진집 발간을 계기로 추진되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건축에 관한 1차 사료를 소환함으로써 예찬해 마지않는 전통건축의 현존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재경의 수원화성 사진을 〈화성성역의궤〉와 〈화성능행도〉와 함께 보라고 권하거나, 구본창의 소쇄원 사진을 18세기 〈소쇄원도〉 목판화와 함께 보도록 배치한 것도 마찬가지로 의도로 읽힌다.

화성 팔달문이나 소쇄원 광풍각의 건립과정을 CG로 제작한 화면, 양동마을 향단을 VR 영상으로 조작할 수 있게 이이패드를 놓아 준 것 등은 전통 목조건축의 구법과 배치를 대중에게 이해시키려는 충정의 산물이다. 여기에 더하여

〈경기감영도〉나 〈금동대탑〉의 디지털 화면을 DID로 조작하며 확대화면으로 볼 수 있게 배려한 점은 현대화를 통한 계승과 국제화가 우수한 건축유산을 물려받은 후손의 임무임을 깨우치려는 듯하다.

‘삶과 어울림의 공간’을 표방하며 전시된 세 번째 단락의 도산서원과 소쇄원은 구본창과 김도균의 사진 속에서 특정한 시간, 계절, 빛을 획득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나 관람자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연다. 이는 그곳에 가더라도 만날 수 없을지 모를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전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며 예기치 않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양동마을 무첨당의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유첨당〉과 목조건물의 측면을 천으로 재현한 서도호의 〈북쪽 벽〉이 한 공간 안에서 문득 조우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의 재현에 그치지 않는 창조적 계승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지만, 이번 삼성미술관 Leeum의 〈한국건축예찬전〉이 깨달음을 향해 나선 구도자에게 점수돈오(漸修頓悟)와 돈오점수(頓悟漸修) 어느 쪽에든 밀거름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

침묵과 장엄의 세계

불교와 유교건축의 정신성, 장엄미
그리고 조형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선암사 등과 왕실의
사당인 종묘를 사진으로 담아 한국인의
종교관과 정신세계를 짚어본다.
이와 함께 <용두보당> <용두토수>
<아미타설법도> 등의 불교건축 관련
유물과 사찰 가람 배치의 연구모형,
통일신라시대 불교 석조건축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석굴암 3D 복원 영상,
종묘 건축과 제례를 담은 특별 영상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구본창 <통도사 전경>

